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68)(5/20/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3 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계함, 3-4 절

습 2:3 -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요 16:13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전 2:13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호 4:1-2 -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 나는 겸손한 심령을 눈 깜짝 할 사이에 높이 들어올려서, 신학교에서 십 년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영원한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 주는 이이다. 나의 가르침에는, 시끄럽게 많은 말들을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을 유도하는 것도 없으며,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논쟁하며 다투는 것도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멀리하고, 현세에 속한 것들을 혐오하며, 영원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높임 받는 것을 피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감내하며, 모든 소망을 내게 두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나를 열렬히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4. 어떤 사람은 단지 나를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진리들을 배웠고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들을 열심히 연구한 경우보다 영적으로 더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해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 말해 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상징을 사용해서 희미하게 계시해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에 속한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계시해 준다. 이것은 어떤 책이 내는 목소리는 하나이지만, 그 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심령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생각들을 분별해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자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드러내 보이시며 질문하셨다. 욥 38:1-2, 4-5, 16-18 -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겸손임을 가르친다. 습 2:3 -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사 57:15 -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증거한다. 요 16:13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엡 4:21 -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다(빌 3:8).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고전 2:13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지향하며 가르치기 때문이다. 골 3:1-2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눅 10 장에 나오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그 어떤 보다는 사모했다는 것이다. 눅 10:41-42 -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자는 대단한 지성인,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다. 호 4:1-2, 6 -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타락한 모습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엡 4:13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함으로 겸손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함으로 진정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함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찾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권영봉, 이창배 전만규)의 가정과 사역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펜데믹과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스리랑카, 아프리카 국가 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복음의 은혜와 함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